

##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분류한 한국어의 감탄사\*

오규환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 <Abstract>

Oh Gyu-Hwan. 2019. *Classifying Korean Interj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Word-formation*. *Korean Semantics*, 65. In this paper, I have accounted for some issues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Korean interjection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interjection is a part of speech which is similar to sentences. Second, there are two criteria[e.g. functional criterion and structural criterion(the internal structure of interjections)] which can classify the Korean interj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word-formation. Third, based on the functional criterion, Korean interjections are classified into hesitant interjection, emotive interjection, reply interjection, call-up interjection, command interjection, and onomatopoeic interjection, etc. Fourth, based on the structural criterion(the internal structure of interjections), Korean interjections are classified into simple interjection(e.g. root interjection, base-modified interjection, partial reduplicated interjection, etc.) and complex interjection(e.g. compound interjection, derivative interjection, full reduplicated interjection, ending-combined interjection, josa-combined interjection, etc.). Fifth, base modification is mostly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emotive interjection and onomatopoeic interjection. Sixth, nonmorphological word-creating rule and lexicalization are mostly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reply interjection, call-up interjection, command interjection.

---

\* 이 글은 “2019년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2019. 7. 4., 서울대학교)와 ‘제45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 학술대회’(2019. 8. 13.,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각각의 발표회장장과 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익명의 심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핵심어: 감탄사(interjection), 단어 형성(word-formation), 교차 분류(cross-classification), 감탄사의 기능(function of interjection), 감탄사의 내적 구조(internal structure of interjection)

## 1. 서론

품사의 명칭만을 놓고 보면, ‘감탄사’에는 오직 [감탄](exclamation)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만이 속하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탄사를 다룬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였다고, 감탄사에 속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남기심·고영근 1993, 오승신 1995, 신지연 2001, 최형용 2016, 도원영 2017 등).<sup>1)</sup> 단적으로, 최형용(2016: 287-290)에서 제시한 다음의 (1)만 확인하더라도 《표준》에서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는 단어들이 꼭 [감탄]의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 감탄사의 의미 유형(최형용 2016)

#### ㄱ. 감정 감탄사의 의미 유형

[개달음](아하, 아), [늠우침](아뿔싸, 아차), [아픔](아으, 아이쿠), [슬픔](아, 어이), [힘듦](아이고, 아휴), [놀람](아, 이크), [기쁨](오, 와), [흥겨움](얼씨구), [즐거움](하하, 허허)

#### ㄴ. 의지 감탄사의 의미 유형

[승낙](아무려나), [화냄](때끼, 뻘), [놀림이나 조롱](메롱, 아나), [금지](아서, 아서라), [동의함](웁소), [확인](웨), [재촉](자), [머뭇거림](저기), [실망함](에이), [업신여김](애개, 애계), [못마땅함](어허, 아이참), [궁정](응, 네), [부정](아니, 아니요), [주저함](글쎄, 글썄요)

이처럼 감탄사에 속하는 단어들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의미나 기능들 때문인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풀이한 ‘감탄사’의 정의, 즉 ‘품사의 하나.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이다.’를 고려하여 보아도 감탄사에 속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감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 언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사전이며 우리가 제시한 자료들은 2019년 7월 1일에 마지막으로 검색하여 얻은 자료들이다. 아울러 번잡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를 《표준》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지는 몰라도, ‘간투사(interjection)’라는 범주를 한국어 문법론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라든지(오승신 1995, 신지연 1998, 2001), 감탄사라는 범주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있을 정도로(서태룡 1999ㄱ, 황병순 2015) 감탄사라는 품사의 범주적 정체성은 다른 품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감탄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는 주로 ‘(개별) 감탄사의 기능’(오승신 1995), ‘감탄사의 품사 통용 문제’(서태룡 1999ㄱ, 2016), ‘감탄사와 담화 표지와의 상관관계’(신지연 2001), ‘감탄사의 범주 설정 문제’(서태룡 1999ㄱ, 황병순 2015 등) 등을 주로 논의한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에 힘입어 한국어 감탄사의 특성들이 주도면밀하게 기술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감탄사의 형성 과정과 내부 구조에 대하여 논의한 선행 연구는 유창돈(1973), 서태룡(1999ㄱ), 허재영(2001), 김문기(2019) 등을 제외하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다음은 유창돈(1973)에서 언급한 감탄사의 형성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 (2) 유창돈(1973)의 파생 감탄사 형성 과정

- ㄱ. 명사 > 감탄사: 정말, 참
- 나. 명사+토 > 감탄사: 불이야, ㅈㅈㄴ들에, 아흐~야
- ㄷ. 동사+어미 > 감탄사: 보소, 보자
- ㄹ. 부사 > 감탄사: 이대이대, 또, 아주
- 마. 부사+토 > 감탄사: 아마도
- 바. 감탄사+토 > 감탄사: 오호라, 어허야
- 사. 어절 > 감탄사: 이 보오 > 여보

‘토’(조사)를 파생 접미사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영접사의 설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2)에 제시한 감탄사들의 내적 구조는 동일하지 않다. 더욱이 감정 감탄사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단어들을 놓고 보더라도, ‘깜짝이야’는 어미 결합형 감탄사, ‘앗’은 단순 감탄사<sup>2)</sup>로 분류할 수 있으며

2) 이 글에서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한국어의 단어 분류 체계는 바로 오규환(2016)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단어 분류 체계이다. 오규환(2016)에 따르면 단어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의 가능 여부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그리고 단일어는 그 형성 과정에 어떠한 형태론적

이와 같은 양상은 [명령]을 나타내기 위한 감탄사에서조차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이라<sup>01</sup>’은 단순 감탄사이고 ‘바른걸음으로가’는 어미 결합형 감탄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동일한 의미 유형에 속하는 감탄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내적 구조는 단어들마다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우리는 다음의 (3)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과 특성을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 (3) ㄱ.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기능과 형식에 따라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을 어떻게 교차 분류할 수 있는가.  
 ㄴ. 기능과 형식에 따라 한국어 감탄사를 교차 분류하였을 때, 개별 유형에 속하는 한국어 감탄사의 특성은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물론 위의 (3)에 제시한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여러 사전류들에 등재되어 있는 감탄사라든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감탄사까지도 망라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일단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645개의 감탄사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표준》에 등재되어 있으나 방언 자료로 분류된 감탄사는 별도의 지면에서 논의할 것인바, 이 글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감탄사의 범주적 정체성과 그 교차 분류 기준

### 2.1. 한국어 감탄사의 범주적 정체성

한국어의 감탄사를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어 문법론에서 감탄사라는 범주를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한국어 문법론에서 감탄사의 범주 설정 문제와 관련

---

과정이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단순어’, ‘어기 변동어’, ‘두음절어’, ‘혼성어’로 나뉜다. 한편 복합어는 그 핵의 문법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파생어’, ‘합성어’, ‘통사적 결합어’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결합어는 ‘조사 결합어’와 ‘어미 결합어’로 나뉜다.

한 입장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입장은 감탄사를 한국어의 독자적인 품사로 인정하는 입장이고(남기심 · 고영근 1993, 최형용 2016 등), 두 번째 입장은 감탄사라는 범주보다는 간투사 내지는 담화 표지라는 범주가 문법 기술에 더 유용한 범주라는 입장이고(오승신 1995, 신지연 2001 등), 세 번째 입장은 감탄사에 속하여 있는 여러 단어(혹은 표현)들이 사실은 다른 범주에 귀속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입장이다(서태룡 1999 ㄱ, 황병순 2015 등).

기왕의 문법론에서 감탄사라는 범주를 설정한 것은 문장 내에서 여타의 요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어들을 묶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 문법에서 감탄사를 독립언으로 분류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만’과 ‘우향우’처럼 감탄사로 분류된 단어들이 각각 ‘금지’나 ‘명령’과 같은 화행을 담당한다든지, ‘여보게’, ‘여보세요’ 등과 같은 감탄사가 상대 높임법과 관련하여 특이한 행태를 보인다는지 하는 것은 여타의 품사들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감탄사만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들이야말로 감탄사의 범주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특성들이 아닐까 한다.

감탄사의 범주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서태룡(1999 ㄱ)에서는 《표준》을 비롯한 여러 사전들에서 감탄사로 처리한 단어들이 사실은 다른 품사에 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 즉 감탄사의 품사 설정 자체를 의심한 논의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최근의 논의는 황병순(2015)이 대표적이다. 황병순(2015)는 다음의 (4)에 제시한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 (5)와 같은 유형의 감탄사를 소형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ㄱ. 그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더라. / 에이! (니가 그 사람을 몰라 그래.)

나. 이렇게 돌리면 돌아간다. / 아하! (이제 알았다.)

ㄷ. 선물 받으니 그렇게 좋니? / 헤헤!

ㄹ.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맙시다. / 아멘.

ㅁ. 저도 한번 해 볼까요? / 아서라.

바. (제식 훈련 과정에서) 차려, 뒤로 돌아, 뛰어 가!

사. 물을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은데요. / 글쎄(요)!

ㅇ. {이봐!, \*이봐요!} 누군 바본 줄 알아? / {\*이봐!, 이봐요!} 누군 바본 줄 아세요.

ㅈ. 리포트 제출했어?/ {그래, 예.}

(5) 황병순(2015)에서 소형문으로 처리한 감탄사의 유형과 목록

ㄱ. 고유 단어문: 아, 어, 아이구, 하, 허, 아하, 헤헤, 야(아), 후유, 흥...

ㄴ. 명사(구) 기원형: 만세, 정말, 진짜, 애(이 애), 어깨 총, 제기랄 (거), 오라질 (놈), 빌어먹을 (놈), 부름말(작은 오빠, 작은 아버지)...

ㄷ. 동사(구) 기원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그래, 앓아, 쉬어...

ㄹ. 부사(구) 기원형: 그래, 왜, 바로(명령어), 앞으로 나란히...

논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문(full sentence)’과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서의 ‘소형문(minor sentence)’은 완전문의 일부가 나타나지 않은(혹은 생략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의 소형문은 다양한 유형의 품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들만 놓고 보면 감탄사라는 품사로 이루어졌다고 논의된 소형문들은, 감탄사가 아닌 품사들로 이루어진 소형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황병순(2015)의 논의가 더욱 더 설득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5ㄱ)에서 ‘고유 단어문’이라고 가리켰던 유형의 단어들의 품사가 무엇인지까지도 분명해져야 한다. 예컨대 “세인이가 어제 야식을 먹었다던데?” / “정말?”과 같은 대화에서 “정말?”이라는 문장이 ‘정말’이라는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소형문이라면 “세인이가 어제 먹은 야식이 라면 맞지?” / “응.”이라는 대화에서 ‘응’이 어떠한 품사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면, 품사명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지만 우리는 잠정적으로 감탄사라는 범주를 인정하되 한국어의 감탄사가 다양한 품사와 통용될 수 있으며, 감탄사는 단어와 문장의 속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품사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서태룡(1999ㄱ)과 황병순(2015)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되 감탄사라는 독자적인 단어 부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의 제3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일부의 감탄사가 소

3) 이윤희 · 황병순(2017)에서는 소형문을 ‘단어나 구의 형태로 구어 환경에 독립적으로 쓰여 화자의 발화 의미를 효율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인이가 어제 먹은 야식이 라면 맞지?” / “응.”이라는 대화에서 ‘응’은 단어이고, ‘응’이 단어라면 어떠한 품사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단어가 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형문에서 사용되어 범주 변화를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완전문이 어휘화한<sup>4)</sup>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6) ㄱ. (완전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 말이 맞을 리가 없잖아.

ㄴ. (소형문) 아무리, 그 사람 말이 맞을 리가 없잖아.

ㄷ. (완전문) 앞으로 가! > (감탄사) 앞으로가

예컨대 우리는 (6ㄱ)에 제시한 완전문의 ‘아무리’라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지만 (6ㄴ)에 제시한 소형문에서 ‘아무리’는 부사어에서 감탄사로 범주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sup>5)</sup>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문인 ‘앞으로 가!’에서 범주 변화를 경험하여 감탄사 ‘앞으로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어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이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감탄사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 2.2. 한국어 감탄사의 교차 분류 기준으로서의 ‘기능’

감탄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기왕의 논의는 일찍이 유길준(1909), 주시경(1910), 최현배(1937)에서부터 관찰된다. 최현배(1937)에서는 유길준(1909)와 주시경(1910)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의지 감탄사’라는 범주를 제안하였고 이와 같은 논의는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과 더듬거림’ 등으로 분류한 학교 문법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하나는 ‘입버릇과 더듬거림’이 과연 감정 감탄사나 의지 감탄사와 대등한 자격을 지니는, 감탄사의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명사를 실질 명사와 형식 명사로 나누듯이 감탄사도 실질 감탄사와 형식 감탄사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4) 이 글에서의 ‘어휘화’는 오규환(2016)의 어휘화, 즉 ‘덜 어휘적인 구성이 더 어휘적인 구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5) 《표준》에서는 ‘아무리’를 [부사] 『1』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 『2』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감탄사]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즉 ‘입버릇과 더듬거림’과 같은 감탄사의 하위 범주가 유용한지부터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감탄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비록 그 용어는 사소하게 차이를 보일지라도<sup>6)</sup>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는 인정하되 제3, 혹은 제4 이상의 하위 범주에 대하여서는 다소 다르게 범주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창돈(1973)에서는 다음의 (7)과 같이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의사 감탄사’, ‘음울 감탄사’ 등으로 나눈 바 있다.

(7) 유창돈(1973)의 감탄사 분류

- ㄱ. 감정 감탄사: [歡喜](어허허허), [慨嘆/哀惜](어즈버/ㅇ·!), [感歎](앗구려, 아으), [氣勢](아라마초쵸)
- 나. 의사 감탄사: [肯定](오냐), [嘆願](아소), [決意](보자), [危急](불이야), [인기척](아함, 어휴아), [決心](잘코셔니), [祝呪](고스레), [應諾](도타도타)
- ㄷ. 음울 감탄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알리 알리 알랑성...

유창돈(1973)의 이와 같은 논의는 허재영(2001)이라든지 도원영(2017)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되나, ‘입버릇 및 머뭇거림’을 감탄사의 하위 범주에서 논의하지 않는 대표적인 논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창돈(1973)의 논의는 허재영(2001)에 거의 그대로 이어졌는데, 허재영(2001)에서는 감탄사를 다음의 (8)과 같이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운율 감탄사’로 나누었다.

(8) 허재영(2001)의 감탄사 분류

- ㄱ. 감정 감탄사: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며, 문장의 다른 요소에 관여하지 않는 낱개의 어휘
- 나. 의지 감탄사: 화자가 청자에게 ‘단념, 주의, 독려, 유도, 제촉, 위협’ 등의 의지를 표현하는 독립된 하나의 어휘
- ㄷ. 운율 감탄사: 일상적인 담화에서는 잘 안 쓰이고 흥을 돋우거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 쓰이는, 음악적 요소로만 사용되는 감탄사

6) 실제로 도원영(2017)에서는 감탄사를, 놀람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는 ‘감정 감탄사’, 청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표현하는 부름, 응답 등의 행위를 유도하는 ‘의지 감탄사’, 담화 과정에서 삽입되는 군말 등과 같은 ‘형식 감탄사’로 나누었는데 여기에서의 형식 감탄사는 학교 문법에서의 ‘입버릇 및 더듬거림’ 정도로 이해될 법하다.



허재영(2001)에서는 의지 감탄사 설정과 관련하여 서술어의 활용형은 감탄사의 뜻을 나타내더라도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높임법에 따른 변이형은 대표 형태를 정하고, 나머지는 변이형으로 처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과는 달리 신지연(2001)에서는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로 나누고 감정 감탄사는 [+처음앓]/[-처음앓]으로, 의지 감탄사는 ‘부르거나 대답하는 소리’, ‘명령 감탄사’, ‘형식 감탄사’로 나눈 바 있다. 요컨대 신지연(2001)에서는 기왕의 논의에서 제3의 범주로 논의되었던 ‘입버릇 및 더듬거림’을 의지 감탄사의 한 유형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신지연(2001)에서는 다음의 (9)와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 (9) ㄱ. 감탄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형 발화를 이룬다.
- 나. 감탄사는 통사 층위와 분리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화용상의 단어이다.
- 다. 감탄사는 화용상의 단어로서 ‘담화 표지’로 쓰일 수 있다.
- 르. 감탄사는 최소한의 기본 의미만을 가지며, 그 구체적 의미는 대부분 상황 의미이다.
- 마. 감탄사의 기본 의미는 담화 표지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었다는 진술은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식이 새로이 형성되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단위를 ‘어휘적 단어(lexical word)’라고 가리켜, 이를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단어인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와 구별하기도 한다(최형용 2016). 그런데 여기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사실은 이른바 ‘형식 명사’라는 범주가 존재하므로 ‘명사’라는 품사에 귀속되는 모든 단어들이 모두 실질 의미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관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그’, ‘저’ 등과 같은 지시 관형사와 ‘새’, ‘헌’ 등과 같은 성상 관형사의 의미의 실질성 정도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감탄사도 실질 의미가 풍부한 감탄사와 실질 의미가 풍부하지 않은 감탄사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우리는, 기존 논의들에서 ‘감정 감탄사’라든지 ‘의지 감탄사’, 또는 ‘입

버릇 및 머뭇거림’ 등으로 분류하였던 감탄사를,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실질 감탄사’와 ‘형식 감탄사’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질 감탄사는 ‘감정 감탄사’, ‘부름 감탄사’, ‘응답 감탄사’, ‘명령 감탄사’, ‘의성 감탄사’ 등으로 나눌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실질 감탄사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기능에 따른 《표준》 등재 실질 감탄사의 유형과 개수

| 유형(개수)      | 실제  |
|-------------|---|
| 감정 감탄사(312) | 난장맛을, 맑소사, 브라보, 세상에, 아뽕싸, 아이고머니, 어쭈...  |
| 부름 감탄사(48)  | 야 <sup>04</sup> , 어이 <sup>05</sup> , 여보게, 여보시오, 이보게, 이보시오, 저보시오...                      |
| 응답 감탄사(51)  | 고령지, 그래, 그래그래, 네, 그럼 <sup>02</sup> , 암 <sup>02</sup> , 오냐, 옳지, 옹 <sup>01</sup> , 천만에... |
| 명령 감탄사(132) | 걸어총, 꽃아칼, 뒤로돌아, 레디고, 무릎좌, 바로, 췌, 해쳐...  |
| 의성 감탄사(114) | 메롱, 어기야디야, 어여차, 어허둥둥, 이랴 <sup>01</sup> , 영치기영차...                                       |

또한 우리는 기왕의 논의들에서 형식 감탄사로 파악하였던 몇몇 감탄사들을 ‘주저 감탄사’라는 범주로 묶고자 한다. 박진호(2008, 2010)에서는 ‘문장을 만들 때에 어떤 자리를 임시 방편으로 채울 때 사용되는 언어 요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자리채우미(placeholoder)’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다음의 (10)에 제시한 ‘거시기’가 한국어의 자리채우미라고 지적한 바 있다.

(10) 자리채우미로서의 ‘거시기’(박진호 2010)

ㄱ. 갑: 지금 뭐 끓이는 거야? 옥수수물?

을: 아니, 거시기, 거시기 뭐냐, 모과차 끓이는 거야.

ㄴ. 딸: 엄마, 그거 끓이지 마.

엄마: 찌개 아니냐? (뚜껑을 열어본다.) 이게 뭘 물이냐?

딸: 그 물 거시기한 물이야. 그거, 그게 뭐냐면, 베지밀 댕헨 물이야.

(박근형 1997: 6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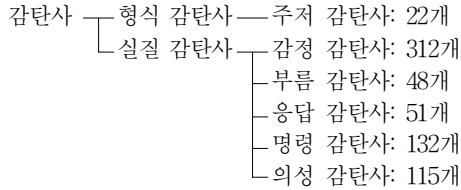
박진호(2010)에서는 한국어의 ‘거시기’, ‘저’, ‘저기’, ‘그’, ‘있잖아’, ‘뭐냐’, ‘뭐더라’ 등이 담화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단어들의 기능이 [주저]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바, 이들을 주저 감탄사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감탄사를 ‘형식 감탄사’라고 일컬어 온 듯하다. 이와 같은 용어도 그 나름대로 적절한 듯하지만, 우리는 ‘형식’이라는 용어보다는 간투사의 용법을 보이는 감탄사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주저]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한다. 그리고 주저 감탄사에 속하는 감탄사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기능에 따른 《표준》 등재 주저 감탄사의 개수

| 유형(개수)     | 실제  |
|------------|---|
| 주저 감탄사(22) | 거시기, 거시기, 그 <sup>02</sup> , 뭐, 머시냐, 뭐, 어 <sup>02</sup> , 예 <sup>02</sup> , 예예, 음 <sup>01</sup> , 저기 <sup>02</sup> ... |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기능에 따른 《표준》 등재 감탄사 분류

이제 관심을 돌려 한국어의 감탄사를 내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보도록 하겠다.<sup>7)</sup>

7) 앞서 우리는 《표준》에 등재된 645개의 감탄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표 1>과 <표 2>에서 개별 유형에 속하는 감탄사의 총 개수가 673개인 것은 형식은 동일하지만 둘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감탄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sup>02</sup>’와 같은 감탄사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와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는 소리’로 뜻풀이되고 있는바, 이는 ‘감정 감탄사’와 ‘주저 감탄사’의 용법을 모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3. 한국어 감탄사의 교차 분류 기준으로서의 ‘단어의 내적 구조’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감탄사의 형성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유창돈(1973)에서는 감탄사의 조어 유형을 ‘근감탄사(根感歎詞)’, ‘합성 감탄사’, ‘파생 감탄사’로 나눈 바 있다. 이는 학교 문법과 동일한 단어 분류 체계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타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감탄사를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단일 감탄사’, ‘복합 감탄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일 감탄사를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직접 구성 성분을 식별하기 어려운 감탄사라고 하더라도 그 형성 과정까지 설명하고자 한다면 단일 감탄사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규환(2016)의 논의를 따라 ‘단순 감탄사’, ‘여기 변동 감탄사’, ‘부분 중첩 감탄사’ 등으로 나눌 것인 바,<sup>8)</sup> 이를 보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형성 과정에 따른 《표준》 등재 단일 감탄사의 유형과 개수

| 유형(개수)            | 실제   |
|-------------------|--|
| 단순<br>감탄사(237)    | 그 <sup>02</sup> , 글썄, 까꿍, 네 <sup>03</sup> , 메롱, 바로, 쉬 <sup>02</sup> , 아니 <sup>02</sup> , 아따, 아야 <sup>01</sup> , 안녕, 액션, 야 <sup>04</sup> , 어 <sup>02</sup> , 어둥둥, 얼씨구, 엉 <sup>02</sup> , 앵, 예 <sup>06</sup> ... |
| 여기 변동<br>감탄사(129) | 거시기/거시키, 구구 <sup>01</sup> /꾸꾸, 떼기 <sup>01</sup> /떼끼, 아이고/아이구/아이코/아이쿠/어이구/어이쿠, 아뿔싸/어뿔싸...   |
| 부분 중첩<br>감탄사(17)  | 따로따로따따로, 만만세, 아차차, 애개개, 어머머, 얼씨구절씨구, 예구구, 예그그, 예쿠쿠, 애고고...   |

위의 <표 3>에 제시하였듯이 《표준》에 등재된 645개의 감탄사 중에서 단일 감탄사로 분류될 법한 감탄사는 총 383개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형의 감탄사는 바로 단순 감탄사로서 단일 감탄사 전체의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형성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여기 변동 감탄사가 단일 감탄사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준》에 등재된 복합 감탄사는 총 262개이다. 복합 감탄사는 다시

8) 오규환(2016)에서는 혼성어와 두음절어도 단일어의 하위 범주로 이해하였으나, 우리가 관찰한 결과 감탄사 중에는 혼성어와 두음절어가 관찰되지 않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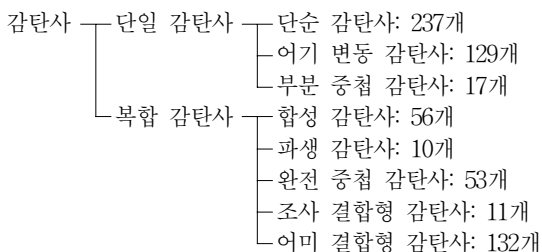
‘합성 감탄사’, ‘파생 감탄사’, ‘완전 중첩 감탄사’, ‘조사 결합형 감탄사’, ‘어미 결합형 감탄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감탄사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형성 과정에 따른 《표준》 등재 복합 감탄사의 유형과 개수

| 유형              | 실제  |
|-----------------|---|
| 합성 감탄사(56)      | 오호통채, 우로어깨충, 우향우, 저거시기, 정말...   |
| 파생 감탄사(10)      | 아이고나, 아이고머니, 어이구머니나, 에그나...   |
| 완전 중첩 감탄사(53)   | 그래그래, 아아 <sup>01</sup> , 아이고아이고, 오나오나, 호호 <sup>03</sup> , 흠흠 <sup>02</sup> ...            |
| 조사 결합형 감탄사(11)  | 글쎄요, 머시 <sup>01</sup> , 뭘, 세상에, 웬걸, 천만에, 천지에, 천하에...                                      |
| 어미 결합형 감탄사(132) | 거봐, 고런, 그래, 그러게, 그런 <sup>02</sup> , 난장맛을, 뒤로돌아, 뛰어<br>가, 모여, 쉬어, 아서라, 어찌면, 여보게, 웁소, 이봐... |

《표준》에 등재된 복합 감탄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어미 결합형 감탄사로서 복합 감탄사 전체의 약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위의 <표 4>를 통하여 파생 감탄사와 조사 결합형 감탄사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내적 구조에 따른 《표준》 등재 감탄사 분류

9) 익명의 심사 위원께서는 ‘아이고나’의 ‘-나’라든지, ‘아이고머니’의 ‘-머니’가 접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다. 물론 익명의 심사 위원의 지적처럼 ‘-나’나 ‘-머니’는 형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감탄사를 활발하게 형성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접사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계열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바, 이 글에서는 분석의 관점에서 이들을 잠정적으로 접사로 처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감탄사를 교차 분류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개별 유형에 속하는 《표준》 등재 감탄사의 개수

| 구분(개수)             |                 | 형식<br>감탄사 | 실질<br>감탄사 |           |           |           |           |
|--------------------|-----------------|-----------|-----------|-----------|-----------|-----------|-----------|
|                    |                 | 주저<br>감탄사 | 감정<br>감탄사 | 부름<br>감탄사 | 응답<br>감탄사 | 명령<br>감탄사 | 의성<br>감탄사 |
| 단일<br>감탄사<br>(383) | 단순 감탄사(237)     | 10        | 104       | 10        | 18        | 52        | 62        |
|                    | 어기 변동 감탄사(129)  | 6         | 102       | 4         | 2         | 4         | 19        |
|                    | 부분 중첩 감탄사(17)   | 0         | 13        | 1         | 0         | 0         | 3         |
| 복합<br>감탄사<br>(262) | 합성 감탄사(56)      | 1         | 17        | 3         | 0         | 26        | 10        |
|                    | 파생 감탄사(10)      | 0         | 10        | 0         | 0         | 0         | 0         |
|                    | 완전 중첩 감탄사(53)   | 1         | 17        | 1         | 4         | 15        | 20        |
|                    | 조사 결합형 감탄사(11)  | 2         | 5         | 0         | 3         | 1         | 0         |
|                    | 어미 결합형 감탄사(132) | 2         | 44        | 29        | 24        | 34        | 1         |
| 총계                 |                 | 22        | 312       | 48        | 51        | 132       | 115       |

위의 <표 5>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첫째, 감정 감탄사는 형성 과정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기 변동을 경험하거나 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여타의 과정들보다 자주 관찰된다는 점이다. 둘째, 의성 감탄사는 완전 중첩이라든지 어기 변동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주저 감탄사도 형성 과정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음이나 모음이 대치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넷째, 부름 감탄사와 응답 감탄사 단순 감탄사보다 어미 결합형 감탄사가 더욱 많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다섯째, 명령 감탄사는 합성이라는 결합 과정을 거쳐 형성되든지 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하여 한국어 감탄사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 3. 한국어 감탄사의 유형과 그 형성 과정 간의 상관관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감탄사의 형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12)와 같은 문제들을 간단하게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 (12) ㄱ. 감탄사의 형성 과정에서 어미가 참여한다는 점이 단어 형성론에서 무엇을 시사하는가?  
 ㄴ. 감탄사 형성 과정에 어기 변동이라는 과정이 관여함으로써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ㄷ. 완전 중첩, 합성, 파생, 비형태론적 단어 창조 규칙(nonmorphological word-creating rule) 등과 같은 공시적인 결합 과정이<sup>10)</sup> 감탄사 형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우리는 (12ㄱ)과 관련하여 감탄사의 어휘화 과정을, (12ㄴ)과 관련하여 쌍형어의 문제를, (12ㄷ)과 관련하여 감탄사가 개방 부류로 이해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다.

#### 3.1. 감탄사와 어휘화

앞서 우리는 어미 결합형 감탄사가 주로 감정 감탄사, 부름 감탄사, 응답 감탄사, 명령 감탄사 등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감탄사의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어미는 크게 어말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어미 결합형 감탄사의 형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어말 어미가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일부 보이면

10) ‘비형태론적 단어 창조 규칙’이란 Di Sciullo & Williams(1987: 78-89)에서 제안된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과정은 통사적 구성과 동일한 내부 구조의 프랑스어 단어 ‘boit-sans-soif(주정뱅이)’, ‘monte-en-l’air(가택 침입 강도)’ 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오규환 2016). 이는 기왕의 단어 형성론에서 공시적인 결합 과정으로 이해한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다음의 (13)과 같다.

(13) ㄱ. 감정 감탄사

거버시오, 거봐, 거봐라, 글썸다, 글썸을시다, 깜짝이야, 다이를까, 두어라, 맵소사, 맵시사, 심봤다, 어마뜨거라, 예뜨거라, 웁다<sup>02</sup>, 요렇지, 이렇지, 조렇지, 저렇지, 좋아...

ㄴ. 응답 감탄사

고렇지, 그래<sup>01</sup>, 그러게, 그럼<sup>02</sup>, 그렇지, 아냐, 아뇨, 아니야, 아니오, 아무렴, 오라<sup>03</sup>, 웁다구나, 웁소, 웁아, 웁지...

ㄷ. 부름 감탄사

여보게, 여보게나, 여보세요, 여보셔요, 여보쇼, 여보시게, 여보시오, 여보십시오, 여보아라, 여봅시오, 여봐, 여봐라, 여봐요, 이보게, 이보세요, 이보쇼, 이보시게, 이보시오, 이보십시오, 이보우, 이봅시오, 이봐, 이봐요, 저보세요, 저보시게, 저보십시오, 저봐요...

ㄹ. 명령 감탄사

대려라, 아서라

우리는 이처럼 어말 어미가 감탄사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를 감탄사가 문장과 단어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앞서 우리는 완전문에서 어휘화한 감탄사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탄사라는 품사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감탄사로 논의되었던 여러 단어들이 소행문이라는 황병순(2015)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응답 화행, 부름 화행, 명령 화행 등이 주로 문장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에 제시한 감탄사는 오히려 단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오규환(2016)에서 제안한 ‘어휘 단위(lexical unit)’라는 범주로 이해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것이다. 또한 ‘여보시오, 여보게, 여보십시오’ 등을 비롯한 ‘여보X’형 감탄사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보-’는 ‘여기보-’에서 형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 변화가 어휘화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13)에 제시한 일부의 감탄사들이 문장과 단어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여보시오, 여보게, 여보십시오’ 등을 비롯한 ‘여보X’형 감탄사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보-’는 ‘여기 보-’에서 형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 변화가 어휘화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13)에 제시한 일부의 감탄사는 문장과 단어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할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다만 부름 감탄사 ‘여보시게’ 등은 감탄사로 이해하지 않고 완전문으로 이해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명령 감탄사인 ‘무릎썉’과 ‘무릎앉아’ 등은 각각 ‘무릎을 꿇고 충을 썉!’과 ‘무릎을 꿇고 앉아!’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들을 완전문으로 보기에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잠정적으로 ‘무릎썉’, ‘무릎앉아’ 등과 유사한 감탄사는 소형문일 가능성과 소형문에서 어휘화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자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감탄사의 어휘화 과정은 바로 관형사형 어미를 핵어로 가지는 감정 감탄사의 어휘화이다. 아래의 (14)는 관형사형 어미가 핵어인 감탄사를 일부 보인 것이다.

(14) 감정 감탄사(전성 어미 결합형)

고런<sup>02</sup>, 그런<sup>02</sup>, 난장맛을, 난장칠, 넌장맛을, 넌장칠, 떡을할, 배라먹을, 빌어먹을, 아무러나, 아무려니, 어찌면, 염병할, 요런<sup>02</sup>, 우라질, 육시랄, 이런<sup>02</sup>, 저런<sup>02</sup>, 제길할, 재미불을, 재미할, 쟈장맛을, 쟈장칠, 조런<sup>02</sup>...

그리고 이와 같은 감탄사들은 아래의 (15)와 같은 변화, 이른바 ‘탈종속화(insubordination)’라고 불리는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15) 감탄사 ‘염병할’의 형성 과정

[시기 1] [[염병할]<sub>관형절</sub> [X(X=눔, 자식...)]<sub>명사구</sub>]<sub>명사구</sub>

탈종속화

[시기 2] [염병할]<sub>관형절</sub> > [염병할]<sub>관형사</sub>

범주 변화/범주 통용

[시기 3] [염병할]<sub>관형사</sub>~[염병할]<sub>감탄사</sub>

(14)에 제시한 감탄사들은 대부분 욕설 표현 내지는 비하 표현과 관련이 있다. [시기 1]에 [관형절-명사구]와 같은 통사적 구성은 발화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저주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탈중속화를 통하여 지시, 요청, 경고, 위협 등과 같은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Evans(2007)의 논의를 감안한다면 대표적인 체면 위협 행위인 욕설 표현에서 후행 명사구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후행 명사구가 실현되지 않으면서 [시기 2]에서 관형절은 관형사로 어휘화한 후에 [시기 3]에서는 관형사의 용법과 감탄사의 용법을 모두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 3.2. 감탄사와 어기 변동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바로 감탄사에서 자음이나 모음이 대체된다든지, 음절 수가 줄어든다든지, 특정 음소가 탈락한다든지 하는 과정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두 가지 결과이다. 먼저 감정 감탄사나 의성 감탄사의 경우에는 의성·의태어와 마찬가지로 평음보다는 경음이나 격음이 사용된 감탄사가 [강화]나 [중대]의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음 대치를 통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이해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기 변동을 통하여 쌍형어가 형성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감정 감탄사’, ‘의성 감탄사’, ‘주저 감탄사’에서 관찰된다. 다음의 (16)은 어기 변동과 관련된 감탄사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 (16) ㄱ. 감정 감탄사

네기/네미<sup>02</sup>, 폐기<sup>01</sup>/폐끼/뻬, 무어/뭉, 아가/애개, 아웅<sup>02</sup>/아웅, 아유<sup>01</sup>/아으/아이<sup>02</sup>, 아이고/아이구/아이코/아이쿠/어이구/어이쿠/애고<sup>01</sup>/애구<sup>01</sup>/애쿠/에쿠, 아이구머니/아이쿠머니, 아주<sup>02</sup>/아쭈/어쭈, 아휴/어휴, 아뽕썩/어뽕썩/하뽕썩/허뽕썩, 어렵쇼/어렵쇼, 얼라/얼레/얼레<sup>02</sup>, 얼썩/얼썩구, 흥<sup>03</sup>/형<sup>02</sup>...

#### ㄴ. 의성 감탄사

고수레/고시레/꼬시레, 구구/꾸꾸, 니나노/니나노, 상사뒤야/상사뒤요/상사

다야, 어기여차/ 어기영차, 이여차/이영차/이용차...

ㄷ. 주저 감탄사

거시기/거시키, 무어<sup>11)</sup>/뭐/머

위의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고’와 ‘아이구’는 《표준》에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은 ‘얼라/얼래/얼레<sup>10)</sup>’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쌍형어가 형성되는 현상까지도 단어 형성론의 소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어떠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특정 형식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식이 새로이 형성되는 것은 다분히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어기 변동을 통하여 쌍형어가 형성되는 것은 단어 형성론에서 다룰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독 감탄사에서 쌍형어가 다수 관찰되는지는 어떻게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은 감탄사에서 관찰되는 자음 및 모음 대치라든지 음절 수의 삭감이 형태 변화의 결과인지 아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이고’와 ‘아이구’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ㄱ’과 ‘ㄷ’가 대치되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이른바 고모음화라고 불리는 변화의 결과라는 서술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 결국 감탄사에서 다수의 쌍형어가 관찰되는 것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한 화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기보다는 통시적인 변화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 3.3. 감탄사와 공식적 결합 과정

다음의 (17)에 제시한 감탄사들은 공식적인 결합 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1) 마찬가지로 《표준》의 미등재어이기도 하지만 욕설 표현 중 하나인 ‘니미’는 ‘네미’라는 감탄사에서 고모음화를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17) ㄱ. 의성 감탄사

곤두곤두, 곤지곤지, 달강달강<sup>02</sup>/달공달공/달궁달궁, 두두, 둥개둥개, 둥둥<sup>03</sup>, 드레드레<sup>02</sup>, 따로따로<sup>02</sup>, 빠이빠이, 섬마섬마, 세상세상, 시장시장, 쉼쉼, 어이어이, 우어우어, 우여우여, 우우<sup>02</sup>, 워워, 자장자장, 찹찹, 죄암죄암, 쥐엄쥐엄, 찌찌<sup>02</sup>, 후여후여...

## ㄴ. 명령 감탄사

걸어충, 검사충, 꽃아칼, 받들어충, 세워충, 앞에충, 앞으로나란히, 어깨충, 우로어깨충, 우향우, 이개<sup>01</sup>, 이괴, 이리연초, 이리위, 좌로어깨충, 좌향좌, 좌죄반반, 줍줍, 지어충, 질라래비훨훨...

## ㄷ. 감정 감탄사

아이고나, 아이고머니나, 에그나, 에크나...

(17ㄱ)에서는 완전 중첩에 의하여 의성 감탄사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앞서 어기 변동과 관련하여 자음이나 모음이 대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의 의미를 얻기 위하여 화자가 공시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17ㄴ)에서는 명령형 어말 어미가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형성의 결과가 전문 용어라는 점에서 이들은 공시적으로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 용어야말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형의 감탄사들이 비형태론적 단어 창조 규칙에 의하여 형성 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7ㄷ)에서는 접사 ‘-나’와 ‘-머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감탄사 중에 접사를 직접 구성 요소로 가지는 것은 감정 감탄사뿐이다.

앞서 우리는 ‘-나’와 ‘-머니’를 잠정적으로 접사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전 뜻풀이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8) ㄱ. 아이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ㄴ. 아이고머니: ‘아이고’보다 느낌이 더 깊고 간절할 때 내는 소리.

ㄷ. 아이고머니나: ‘아이고머니’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 (19) ㄱ. 예그: 안타깝거나 안쓰러운 일을 볼 때 내는 소리. 징그럽거나 끔찍하거나  
섬뜩할 때 내는 소리.  
ㄴ. 예그나: ‘예그’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위의 (18)-(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와 ‘-머니’가 결합한 단어에서는 이들이 결합하지 않은 단어들에서 포착되지 않는 의미가 관찰된다.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나’와 ‘-머니’ 등의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들은 잠정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로 처리할 여지가 있을 듯하다.

#### 4. 결론 및 남은 문제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감탄사를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 ㄱ. 한국어의 감탄사는 문장의 성격과 단어의 성격을 두루 띠고 있는 문법 단위이지만 감탄사라는 범주는 인정하는 쪽이 문법 기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ㄴ.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감탄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한국어의 감탄사는 형식 감탄사와 실질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형식 감탄사는 주지 감탄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실질 감탄사는 감정 감탄사, 응답 감탄사, 부름 감탄사, 명령 감탄사, 의성 감탄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ㄷ. 단어 형성론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감탄사를 내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한국어의 감탄사는 단일 감탄사와 복합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단일 감탄사는 어떠한 형태론적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 단순 감탄사, 어기 변동 감탄사, 부분 중첩 감탄사로 나눌 수 있으며, 복합 감탄사는 합성 감탄사, 파생 감탄사, 완전 중첩 감탄사, 어미 결합형 감탄사, 조사 결합형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 ㄹ. 한국어의 감탄사를 기능과 내적 구조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 교차 분류하면 감정 감탄사와 의성 감탄사는 어기 변동을 경험하는 경우를 자주 관찰할 수 있으며 감정 감탄사, 부름 감탄사, 응답 감탄사, 명령 감탄사는

어휘화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ㄱ. 어미 결합형 감탄사 중 어말 어미 결합형 감탄사는 그 범주적 지위가 단어 인지 문장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전성 어미 결합형 감탄사는 후행 성분이 생략되면서 재분석을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어기 변동이 관찰되는 감탄사는 쌍형어를 이루는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
- ㄴ. 완전 중첩, 합성, 파생 등과 같은 공시적인 결합 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감탄사의 수가 적다는 것은 감탄사가 실질 의미를 가지는 하지만 개방 부류로 이해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하여야 할 듯하다. 첫째, 이 글에서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형 감탄사에 대하여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둘째, 형식 감탄사로 논의된 감탄사들이 경험하는 문법화 과정이라든지 자음이나 모음이 대치되어 형성된 감탄사의 형성 과정 등이 주도면밀하게 기술되지 못하였다. 셋째, 다수의 감탄사가 어휘화에 의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글에서는 이들 감탄사의 어휘화 과정을 정밀하게 서술하지 못하였고, 이전 시기 문헌 자료들을 전혀 참고하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넷째,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헐’이라든지 ‘대박’과 같은 표현이 감탄사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이 글에서는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넷째, 감탄사의 기능에 따른 분류가 다른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 감탄사’는 ‘단순 응답 감탄사’와 ‘맞장구 감탄사’로 세분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분류를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한국어 감탄사의 형태론적 현안들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후일의 과제로 미루어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문기(2017), “뜻풀이로 본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사 유형 연구”, *우리말연구* 50, 우리말학회, 5-30.
- 김문기(2019), “한국어 감탄사의 내적 구조에 따른 유형 연구”, *동남어문논집* 45, 동남어문학회, 105-127.
- 김승곤(1996), *현대 나라말론*, 박이정.
- 남기심 ·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도원영(2017), “20세기 전기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감탄사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Journal of Korean Culture* 36, 49-74.
- 문숙영(2015), “한국어 탈종속화(Insubordination)의 한 종류”,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1-39.
- 박근형(1997), “‘거시기’류 대용어에 대한 연구: 전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박정아 · 이선웅(201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탄사 의미 기능 분류: 교재 분석을 통한 감탄사의 활용 양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말연구* 55, 우리말학회, 215-243.
- 박진호(2008), “자리채우미(Placeholders)”, *Kling* 2, 1-6.
- 박진호(2010), “자리채우미에 대한 보론”, *국어학회 2010년 여름학술대회 발표집, 국어학회*.
- 서태룡(1999ㄱ), “국어 감탄사에 대하여”, *동악어문논집* 34, 동악어문학회, 7-36.
- 서태룡(1999ㄴ), “국어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동악어문논집* 35, 동악어문학회, 21-49.
- 서태룡(2016), “품사 분류 기준의 우선순위와 감탄사 통용”, *국어학* 80, 국어학회, 3-34.
- 신지연(1988), “국어 간투사의 위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태학사.
- 신지연(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41-259.
-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오승신(1995), “한국어 간투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오승신(2006), “감탄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유길준(1909), *대한문전(역대한국문법대계 1-06)*.
-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이유미 · 황병순(2017), “국어 소형문의 특성과 유형”, *언어과학연구* 80, 언어과학회, 243-267.
- 전영옥(2009),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 *텍스트언어학* 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5-274.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역대한국문법대계 1-11).

최웅환(2015), “국어 감탄사와 품사분류 준거”, 국어교육연구 57, 국어교육학회, 223-250.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최형용(2012), “분류 기준에서 본 주시경 품사 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국어학 63, 국어학회, 313-340.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함병호(2018), “감탄사, 문장’ 구성에 대하여”, 동악어문학 76, 동악어문학회, 125-156.

허재영(2001), “감탄사 발달사”,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의미학회, 65-96.

황병순(2015), “감탄사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 한글 308, 한글학회, 121-157.

Di Sciullo, A. M. & Williams, E.(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MIT.

Evans, N.(2007), Insubordination and its Uses, *Finiteness: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Haspelmath, M. & Sims, A. D.(2010), *Understanding Morphology(2nd edition)*, London; Hodder Education.

오규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하월곡동)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관 B515호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748

전화 번호 : 02-940-4318

전자 우편 : ogh@dongduk.ac.kr

원고 접수일 : 2019. 08. 19.

원고 수정일 : 2019. 09. 10.

게재 확정일 : 2019. 09. 18.